

살롱!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무더웠던 지난 한달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스라엘의 여름도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한국처럼 습하지는 않지만 햇볕 자체가 강하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열기는 상당합니다. 날씨가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극복해낼 것인가..., 매년 이스라엘의 여름을 나기 위한 남다른 각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달 정기 서신을 통해 기도부탁 드린 것과 같이 7월 중에 이스라엘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G.T.I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비록 환경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함께 길을 나선 동역자의 동행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달 이곳에서의 사역과 삶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보시고 함께 두 손 모아 주십시오.

■ 와서 보라 vs 가서 보라

이번 북부지역 G.T.I 여행을 다녀오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은 가서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치겠지요. 이번 목적지는 갈릴리 중북부에 위치한 유대인(카르미엘, 마알롯)마을과 아랍(싸흐닌)마을이었습니다. 예비 된 영혼 그 한 사람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계속 기도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처럼...,” 때로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 소문 때문에 스스로 그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가끔은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는 말보다 직접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제게 주어진 몫으로 남아 있음을 느낍니다. 먼저 가지 않으면서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말은 바 종이 보일 모습도, 태도도 아닐 테니까요...

■ 홀로코스트 생존자 ‘아리엘’ 할아버지

이번 여행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만남은 카르미엘 지역에서 만난 ‘아리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리엘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 그의 나이 14세 때의 경험을 잠시 들려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과거 역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보였던 과오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 기억과 상처의 흔적들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에게 제가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은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할아버지는 그런 저의 마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가지고 간 작은 선물과 복음 메시지를 담은 CD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제가 건넨 마음과 정성을 흔쾌히 받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일방적인 말과 행동에 앞서 마음과 마음을 먼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베두원 신부 ‘와하드’

지난 달에는 이브라힘의 둘째 딸 ‘와하드(17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방문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신랑(마흐무드 22세)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신랑을 보고난 이후 제가 신부 아버지도 아닌데 마음 한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와하드’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두원의 결혼식은 이틀간 이어지는데 결혼식 전날 ‘옴 헨나’와 결혼식 당일 ‘옴 즈페’로 결혼식 행사를 성대하게 갖습니다. 또한 베두원 남자는 다른 어떤 종족과도 결혼할 수 있지만 베두원 여자는 반드시 베두원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두원들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친척 간에 이뤄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간의 유대감 때문이며 둘째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따로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와하드’ 역시 5촌과 결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브라힘의 첫째 딸 ‘라하브(18세)’와 셋째 딸 ‘하딜(15세)’의 결혼식이 있는데 두 사람은 같은 날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성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야곱...,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지요. 그리고 보니 오늘날에 가장 성경의 이야기와 근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베두원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곳의 아이들이 믿음의 형제 또 믿음의 자매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런 신랑, 그런 신부 찾기는 어려울 테니 지금의 이 아이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 가정과 이웃을 복음화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리엘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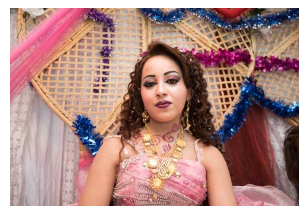
이곳에서도 한류가



미카엘과 함께



결혼식 전날



베두원 신부 ‘와하드’



초대받은 결혼식



특별한 음식 (만찬)

「 기도제목 」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1. 이번 달 G.T.I 대상 지역인 444도로에 위치한 유대인 마을과 아랍 마을들을 축복 하소서
2. 베두원 마을 철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도움이 마련되도록
3. 요압 아저씨 가정과 베두원 마을이 복음화 되도록
4. 자녀들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지도록
5. 무더운 날씨에 가족 모두의 건강(다비드의 허리&어깨, 담희의 비염) 지켜주시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운)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Rev. JAESUK JUNG

-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jaesuk96@gmail.com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 **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